

『及幼方』에 대한 연구

조미숙 · 차웅석 · 김남일¹⁾

The study on 『Gup Yu Bang』

Jo Mi-Sook · Cha Wung Seok · Kim Nam il

『Gup Yu Bang』 is the first Korean book that specialized in pediatrics. It was written by Jo Jeong-jun on the 25th year of King Young Jo in the Choson dynasty.

He quoted a lot of information from 『Yi-Hak-Yip-Mun』 by Yi-cheon in the Myung dynasty and 『Xiao Er Yao Zheag Zhi Jue』 by Qian Yi in the Song dynasty, but he added his own opinions and clinical experiences to the book.

In addition to that, the book explains not only symptoms and prescriptions but also the etiology and pathology of children's diseases.

In particular, he showed a great deal of creativity in his book called 『Dong Bang Six Fu's Qi Principle』

After studying 『Gup Yu Bang』, I have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1.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treatment in pediatrics.
2. When we make a diagnosis, facial inspection has priority.
3. In terms of treatment, Wu zang is a general rule. Therefore, we should focus on Wu zang and Pi Wei.
4. The following terms definition symptom cause prescription clinical example prevention are to be explained with reference to the nature or symptoms of the disease.
5. We can see that smallpox was more widespread than the measles in the period of King Young Jo.
6. Even though he was influenced by 『Yi-Hak-Yip-Mun』, 『Xiao Er Yao Zheag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Zhi Jue』, and 『Dong eui bo gam』, his own explanation is clearer in his book called 『Gup Yu Bang』 which is based on his own clinical experiences.

7. 『Gup Yu Bang』 is a practical and experiential book.

I. 서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韓醫學에서 새로운 풍조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분과적으로 세분화 전문화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小兒科 영역이다.

小兒科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小兒에게 항생제를 비롯한 양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東洋思想과 韓醫學에 대한 관심과 自然療法과 民間療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韓醫學에 있어서 小兒科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小兒科는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成長 發達하는 과정에서 小兒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자라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또한 年齡에 따른 건강의 표준을 탐구하고, 小兒 특유의 生理 病理를 연구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疾病의 豫防 治療 保健 調理의 方法을 연구하는²⁾ 분야이다.

한의학에 있어서 소아에 대한 언급은 甲骨文에서부터 볼 수 있다. 『黃帝內經』에서도 小兒科의 範圍 및 小兒生長發育過程, 生理 病理, 病因 病機에 대해서 기술하여 小兒科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隋唐에 이르러 小兒科가 전문과로 개설되어 小兒의 健康과 疾病豫防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小兒科 최초의 전문서적으로 『顛顛經』이 저작되었다. 宋代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은 『顛顛經』의 小兒純陽에 근거하여 小兒의 生理 病理의 특징을 확립한 것이다.³⁾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아과 전문의서는 영조때 趙廷俊에 의해 쓰여진 『及幼方』이다. 趙廷俊은 「東方六氣論」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風土가 다르므로 발생하는 疾病도 다르다. 그러므로, 治法과 治方도 달라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及幼方』은 지금까지 간행되어진 책들 중에서 자신의 임상경험을 가장 많이

2)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杏林出版, 서울, 1992,p31

3) 이훈:중국소아과학의 사적고찰, 경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p93-94

수룩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論者는 小兒科 歷史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趙廷俊의 『及幼方』이 저작된 이유를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趙廷俊의 학문경향속에서 살펴보겠다. 또한, 『及幼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及幼方』 구성의 특징, 『及幼方』에 기재된 小兒科疾患의 病因 病機 治法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及幼方』에 나타난 趙廷俊의 實證的인 臨床 經驗과 小兒論 醫論을 고찰해 보겠다

『及幼方』에 대한 고찰이 小兒科研究의 바탕이 되어, 小兒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더 새롭게 구성된 소아과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II 본론

1. 中國 小兒科의 歷史

기원전 12세기의 甲骨文字에 小兒疾病에 관해서 기재되어있고⁴⁾, 『尙書』 『孟子』 등에서도 小兒를 중시한 말이 나타나있다.

『史記·扁鵲傳』에 扁鵲이 “入咸陽, 聞秦人愛小兒 卽爲小兒醫”라 하여, 최초로 小兒疾病을 전문적으로 論治한 醫生 “小兒醫”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馬王堆에서 출토된 醫書인 『五十二病方』은 小兒科를 기술한 최초의 의서이다⁵⁾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 七七, 任脉虛, 太衝脉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 八八, 則齒髮去,⁶⁾라 하여 生長發育過程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또한, 『素問·奇病論』에서는 帝曰 人生而有病巔疾者, 病名曰何, 安所得之. 岐伯曰 病名爲胎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并居, 故令子發爲巔疾也⁷⁾라 하여, 先天性 癩疾의 病因病機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였다.

東漢末年 張仲景의 제자인 衛訊이 최초로 소아전문의서인 『小兒顛顛經』을 저작하

4) 李經緯著: 『中國醫學通史』, 인문위생출판사, 200, p18

: 殷商 甲骨文的 卜辭에 “帚女來子疾, 不井”이라하였는데, 武丁 女來妃의 아이가 병이 들었으나 죽지는 않았다는 말이고, “貞子疾首”라 하여 武丁의 아이가 頭病을 앓자 예후를 물은 것이다.

5) 『五十二病方』에 기재된 “嬰兒索瘧”은 신생아 破傷風이고, “嬰兒病癩”은 小兒의 熱性驚厥이며, “嬰兒瘰”는 小兒慢驚風으로 선진의학에서는 각종 소아경련성 疾病에 대해서 이미 비교적 정확하게 감별진단하였다

6)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일중사, p7-8

7) 홍원식편찬: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었다. 三國南北朝시기에 이르면 晉宋에 소아과 전문의가인 “江左蘇家”가 있었고, 北齊에 徐之才가 『小兒方』三卷을 기술하였다.

『隋書·經籍志』와 新舊『唐書』에는 소아전문 의적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 小兒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에 이르러 太醫署에 “少小” 즉 小兒科를 설치하였다. 7세기초 小兒科를 독립된 학과로 분과하여 전문적인 소아과 의생을 최초로 배양하였다. 이후 宋代에 太醫局과 元明 清代에 太醫院에서 小方脈科를 설치하여 전문 인재를 배양하였다.

宋代의 錢乙은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經』 『太平聖惠方』 등의 내용을 계승하여 小兒의 生理 病理의 특징을 파악하여 『小兒藥證直訣』을 편찬하였는데 후세 소아과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⁸⁾. 또한, 宋代에 이르러서는 여러 권의 소아과 전문서적이 나왔다. 痘疹에 對한 嚆矢가 되는 董汲의 『小兒斑疹備急論』과 제일 규모가 큰 소아과 전문서적인 劉昉의 『幼幼新書』, 陳文中的의 『小兒病源方論』 『小兒痘疹方論』, 저자 미상의 『小兒衛生總微論』 등이 있다.

2. 우리나라 小兒科의 歷史

小兒科는 대개 분과된 각 과의 전문서를 제외하고는 小兒門이라 하여 각종 의서의 한 부분으로만 기록되었다⁹⁾.

1226년 발행된 『鄉藥救急方』에는 小兒方이라는 부분을 따로 설정하여 小兒疾患을 하나의 중요한 분과로 다루고 있다.

고려말 공명왕때 간행된 『鄉藥簡易方』의 小兒門에는 小兒沐浴法과 鵝口瘡治療에 대한 기록을 비롯하여 많은 治療法이 기재되어 있다.

1443년에 발행된 『鄉藥集成方』卷 67-75에서 소아과를 다루고 있다.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어 있는데, 총론에서는 小兒臍帶切斷法 小兒沐浴法 乳母選擇法 授乳法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각론에서는 小兒의 內科 外科 耳鼻咽喉科 眼科 皮膚科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治療方法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민간에서 얻기 쉬운 약재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鍼灸를 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治方은 주로 『千金方』 『聖惠方』 『得效方』 등 唐宋元 方서들에서 인용하였다.

『東醫寶鑑』은 雜病篇의 「小兒」條에서 소아과학의 총론적인 지식을 많이 논술하고

8) 吳峻煥·金基郁·朴炫局 : 錢乙의 醫學思想上에 關한 研究, 韓國의사학회지, 2001.VOL.14, No.2, p111-113

9) 丁圭萬編: 『東醫小兒科學』, 행림출판, 서울, 1992, p31-33

10) 김수록 : 東醫小兒科學, 麗江出版社, 서울, p 14

있으며, 소아과에 대한 각종 병론을 거의 포함하고 있어 당시에 소아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진전된 것을 보여준다¹¹⁾.

1724년 英祖初年과 1728년(壬申年), 1751년(乙未年)에 麻疹 痘疹 등 소아질환 중에서 가장 잔혹한 전염성 피부질환이 크게 유행하여 많은 의가들이 이에 관한 전문서적을 저작하면서 小兒科가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 당시의 의서로서는 朴震禧의 『痘瘡經驗方』, 李蕃의 『龍山療痘篇』, 人痘種法에 관한 丁茶山の 『種痘心法要旨』, 李種仁의 『時種通編』이 있다.

그 외의 소아과 전문서적으로는 趙廷俊의 『及幼方』, 任端鳳의 『壬申疹疫方』, 李獻吉의 『麻疹方』, 丁茶山の 『麻科會通』 및 李元豐의 『麻疹彙成』 등이 있다. 이런 방서들은 諸家들의 醫方書와 東醫俗方을 널리 채집하여 제가설의 異同을 논증하였다. 丁茶山の 『麻科會通』에는 我俗篇과 吾見篇을 따로 붙여 당시 본국에서 유행한 麻疹을 中心으로 하여 그 病證을 관찰하고 治方을 기술하였다.

牛痘種法은 정다산 등에 의해 현종 원년경(1835년경) 수입되었는데, 『麻科會通』의 卷末에 種痘奇法이 부기되어있다. 우두종법은 고종16년(1879년)에 지식영에 의해서 행해졌고, 고종22년(1885년)에 경험한 중두술을 종합하여 『牛痘新說』을 저술하였다.

『小兒醫方』은 대한제국 광무2년(1898년)에 太醫院典醫를 지낸 崔圭憲(1846-?)의 유고를 1936년에 李基榮 李命七이 편찬하여 活文社에서 간행한 소아과 전문의서이다¹²⁾. 이 책은 『東醫寶鑑』과 『及幼方』에 의거하고 자신의 다년간의 임상경험에 기초하여 저술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하고 실용가치가 크다. 病症을 열거하고 다음에 疾病의 原因과 病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藥方을 병기하고 있다. 예를들면, 泄瀉를 12종, 發熱을 15종, 內傷을 12종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에 對한 治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¹³⁾.

3. 『及幼方』의 저자 趙廷俊(1670-?)¹⁴⁾

趙廷俊은 조선 英祖 때의 의사로 豐陽人이다. 字는 重卿 호는 歸鹿이며 橫城사람이다¹⁵⁾. 나이가 80세인 英祖 25년에 소아과 전문서인 『及幼方』 13卷을 저술하였다.

일찍이 郵丞을 지낸 바가 있으며, 英祖 4年 11월에 동궁을 診察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1) 金信根, 韓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서울, p1

12) 金信根, 韓國醫學大系, 麗江出版社, 서울, p2

13) 김수록 : 東醫小兒科學, 麗江出版社, 서울, p 17

14) 한국의약인명사전에서는 1690-1752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본서 p98

15)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국의약인명사전.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1991. p98

4. 『及幼方』 저술 배경.

첫째. 『及幼方』이 저술된 배경은 당시 사회 문화의 실증적 경향을 들 수 있다.

英祖元年(1725年)부터 哲宗末年(1863年)까지의 5대 139년간¹⁶⁾, 이 시기의 우리 문화는 모든 부문에 걸쳐 부흥적 기운을 보인다. 實證的 學風의 영향과 자극으로, 의학에 있어서도 자주적 경험과 내성적 관찰을 주로 한 專門方書가 많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小兒科學에 관한 전문방서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¹⁷⁾

둘째. 조선시대는 전시대를 통틀어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老弱者의 夭死가 다반사였다. 이에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조선중기엔 疫病이 대유행하여 小兒에 대한 麻疹方이나 頭瘡方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전염병의 유행빈도는 매우 잦았고, 그 규모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희생의 크기도 대단했다. 조선이 존속하던 기간중에 거의 2년마다 한번꼴로 무섭게 전염병이 번졌다.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顯宗12년(1671)에 여역과 수역이 팔도를 휩쓸어 죽은 자 수를 헤아릴 수 없고, 특히 삼남지방은 더욱 처참했다...숙종25년(1699) 각 도에서 여역으로 죽은 자가 25만 7백여명, 영조 25년(1749) 팔도에서 여역으로 죽은 자 50-60만명 이라는 기록이 있다.¹⁸⁾

英祖 初부터 소아의 疹疫, 그 중에서도 麻疹 痘疫 등이 수차례 유행하게 되었다. 英祖 28年 壬申年에 壬申疹疫이 대유행하였고, 英祖 51年 乙未年에 紅疹이 유행하였으며, 正祖 10年과 純祖 2年 壬戌에도 麻疹이 대유행하였다. 痘疫의 유행도 해를 이어 끊임 없이 계속 되었다. 그러므로 소아과에 속한 麻疹 및 痘疫 등의 治方에 있어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¹⁹⁾

셋째. 조정준의 의학사상의 實證性과 獨自性을 들 수 있다.

제1권에 나오는 「東方六氣論」²⁰⁾에서 “무릇 天地사이에 陰陽五行의 기운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갖추어지지 않는 바는 없다. 그런데 四時의 專氣가 각 지방에 따라 다름이 있다. 그러므로 周官土會法에서는 山林에 사는 사람은 털이 나고 각저있고, 하천이나택지에 사는 사람은 검고 윤택하며, 구릉에 사는 사람은 둥글고 키가 크며, 물

16) 金斗鍾은 이시기를 後2期醫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7) 金斗鍾 : 『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p339

18) 김홍균·박찬국 : 『朝鮮中期醫學의 系統에 關한 研究』, 한국의학사 논문집, 1995.8, p183-184

19)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p 339

20) 趙廷俊, 『及幼方』, 麗江出版社, p 39-42

가와 저지대에 사는 사람은 피부가 밝고 수척하며, 벌판과 습지의 사람은 살이 많아서 비대하다.

어찌 산림에 사는 사람에 검고 윤택한 사람이 없겠으며, 하천과택지에 사는 사람에 또한 털이 많고 각저있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 風土와 氣運의 大綱이 같은 무리가 모이고 무리를 나눔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의 품부받은 성품과 병이 발생하는 근원은 각기 그 風土와 氣候에 따라서 다르며, 병을 治療하는 방법도 반드시 각 지방의 專氣(각 지방의 독특한 기세나 기운)을 안 연후에야 두루두루 회통하여 만전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후미지게 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風土와 氣運은 진실로 중국과 더불어 같지 않다. …… 속세의 의사들이 무릇 중국의 질병을 다스리는 법으로 함부로 우리나라의 疾病을 다스리려고 하니, 이는 월나라로 가려하면서 북으로 가는 것을 타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 동방의 의사는 반드시 먼저 그 專氣와 疾病의 氣味를 잘 안 연후에 證에 따라서 藥物을 사용하고 脈診을 하고 砭石을 놓으면 비록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또한 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있다.

이처럼 趙廷俊은, 우리나라의 氣候 風土 生活風習 生活條件이 中國과는 달라 발생하는 疾病이 다르므로 그에 대한 治法이 달라야한다는 자주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及幼方』은 조선후기에 유행하던 실증적 풍조와 疫病의 猖獗이라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六氣가 다르므로,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소아과 의서가 필요하다는 趙廷俊의 자주성속에서 저술되게 되었다.

5. 『及幼方』의 의의

조선 영조25년에 趙廷俊이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小兒科 專門醫書이다.

趙廷俊은 凡例에서, 明代 『醫學入門』과 宋代 錢乙의 『小兒藥證直訣』 등을 인용하여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과 인용에만 그치지않고, 자기의 의견을 많이 도입하고 자신이 경험한 실례를 매편마다 실고 있어서 독창적인 면을 보인다.

또한, 단순하게 증상을 나열하고 처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病因 病理를 밝히고 있어 비교적 辨證論治의 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²¹⁾.

인쇄본은 전해지지않고 필사본 13권 6책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1)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p177

6. 『及幼方』의 구성

서문에서는 『及幼方』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趙廷俊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神農에서부터 시작된 의학이 黃帝가 계승하여 『內經』을 만들고, 이를 이어 秦越人の 『八十一難經』, 張長沙의 『金匱玉函經』, 손진인의 『千金方』에 이르기까지 素問의 뜻을 밝혀놓은 뛰어난 의서들이 많다. 하지만 幼科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책은 없다. 비록 宋代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이 있지만, 연대가 너무 오래되었고 眞篇들이 모두 흩어져서 屢效증이 수집한 한권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古方을 모으고 50년동안 임상에서 얻은 경험을 간략하게 첨가하여 『及幼方』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凡例는 『及幼方』의 전반적인 구성과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고 간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及幼方藥名告는 기술되어진 病證마다 활용되고 있는 處方名을 기술하고 있다.

본문중의 卷1은 총론적인 성격을 띤다.

「東方六氣論」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風土가 다르므로 맹목적으로 중국을 모방하면 안되며 우리의 風土에 맞는 治法을 구사해야함을 강조하였다. 「小兒論」과 「小兒病機」에서는 小兒診斷의 어려움과 小兒가 병에 걸리는 病因 病機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解毒法 洗浴法 乳哺法 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 등을 기술하여 小兒의 양육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小兒診斷法에 해당하는 額脈 虎口三關脈 小兒脈法 觀形察色法 聽聲音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望診을 중시하고 있다. 五臟主病 字母補瀉 五臟相乘에서는 治法의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목차를 보면 「東方六氣論」과 「小兒論」을 이어서 바로 解毒法 延生第一方 洗浴法 乳哺法 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를 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豫防이 治療보다 우선됨을 보여준다.

卷2부터 卷12까지는 小兒가 걸리기쉬운 疾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각 병증마다 症狀 原因 處方 處方構成 醫案 豫防法 등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卷13은 本草發明 食治發明이라 하여, 本草와 食品의 氣味와 效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及幼方』은 총 13卷으로 趙廷俊의 50년간 임상경험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초생아의 沐浴 및 乳哺法에서부터 小兒 특유의 疹疫 癩風 驚氣, 小兒가 걸리기 쉬운 一般 病症, 小兒의 藥治 食治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다. 또한 임상실례를 덧붙여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小兒科 診斷治療에 있어서 실용적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특색있는 소아과 전문서임을 알 수 있다.

7. 『及幼方』의 특징

凡例를 통해서 본 『及幼方』의 내용과 구성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及幼方』은 『入門』과 전씨의 處方을 위주로 하고, 미비한 것은 조정준 개인의 견해를 보충하였고, 평생 경험한 것을 각 부문에 수록하였다

둘째, 소아과에서는 保護가 근본이고 藥物治療는 그 다음이므로, 小兒論 保護法 調護歌 등 긴요한 부분을 책머리에 수록하였다

셋째, 어린이의 병은 症狀을 묻기도 어렵고 맥을 관찰하기도 어려우므로, 觀形察色과 聲音을 살피는 것이 주가 되므로, 形色과 聲音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脈訣과 雜病諸方을 실었다

넷째, 어린이가 服用하는 약제의 종류와 분량이 너무 많은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적게 하였다.

만일 1-2세 아이라면 약종류가 2-3종을 넘지말고 그 분량도 2-3돈을 초과하지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3-4세이상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약의 가지수와 분량을 가감하였다. 古方에 얽매어서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섯째, 각 문의 證治에 사용할 수 있는 湯劑 散劑는 그 아래에 주를 달아 處方이 어느 부문에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본문에 있는 약처방은 이미 그 부문에 있으므로 주를 달지않았다.

여섯째, 天然痘와 紅痘은 『입문』과 『정전』 등의 서적에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趙廷俊은 天然痘에 대해서는 『醫學入門』을 참고하라고 말하면서 자세히 기술하지않았다. 이에 비하여 紅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病因病理 症狀 治療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곱째, 약제중에서 그릇되고 옳지못한 것은 다 변별하고 바르게 수정하여 편의 끝부분에 붙여놓았다. 약의 炒 灸 煨 燉 炮의 제법은 본초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주를 달고있지않다²²⁾

22) 趙廷俊 : 『及幼方』, 麗江出版社, p5-8

8. 趙廷俊의 「東方六氣論」

趙廷俊의 「東方六氣論」은 『素問·異法方宜論』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異法方宜論」에서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踈理, 其病皆爲癰瘍, 其治宜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 라고 언급하면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地勢와 風土가 다르고, 그 風土에 따라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서 발생하는 疾病이 다르기 때문에 治法을 달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趙廷俊은 『素問·異法方宜論』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東方六氣論」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³⁾.

우리나라는 東方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日月이 먼저 뜨고 땅의 경계가 선명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품성이 총명하고 재주가 많다. 春氣가 동쪽에서 발생하면 만물이 번성하므로, 사람의 품성도 인자하고 어질며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木은 風을 일으키므로, 잘 怒하고 싸우기를 잘하고 소리가 높으며 酸味를 좋아한다. 또 지세는 산이 많고 하천과 습지가 많고 유달리 바다에 연결하여 木氣가 강하다.

그러므로 中風 目疾 頭痛 眩暈 氣逆上衝 胸脇痛 心膈痞滿 筋肉痙攣 痿躄 疝瘕 動氣 등의 疾病과 婦人의 崩漏 帶下 隱曲의 疾病, 小兒의 驚風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과 풍토가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내에서도 남북지방의 풍토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방은 바다에 둘러싸여 낮고 습하며, 북방은 산이 높아서 한랭하다. 그러므로 남방사람들은 癰疾 浮腫 臑脹 咳嗽 濕痰 등의 질환이 절반을 차지하고, 북방사람들은 頭風 耳聾 胸腹臍脇痛 沈寒痼冷이 많다고 보았다.

이처럼 趙廷俊은 「東方六氣論」에서 우리나라의 氣勢와 風土가 중국과 달라서 발생하는 疾病이 다르므로 治法과 處方이 달라져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東西南北에 따라 氣勢가 달라서 각 지방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다르므로 다른 治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9. 『及幼方』에 나타난 趙廷俊의 小兒論

23) 上揭書 : 「東方六氣論」, p39-43

(1) 小兒 診斷 治療의 어려움

趙廷俊은 “옛말에 차라리 남자 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보단 부인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고, 부인 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소아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 小兒診斷治療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小兒科 診斷이 어려운 이유를 세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아이의 症候를 물어보기 어렵고 맥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五臟六腑가 軟弱하고 血氣가 虛弱하여, 준렬한 찬 약과 더운 약을 가볍게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小兒의 病症候는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극렬한 질병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²⁴⁾.

(2) 小兒 疾病의 3대 病因.

趙廷俊은 胎毒 內傷乳食 外感風寒을 小兒疾病의 3대 病因으로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胎中에서 받은 胎毒을 주원인으로 보고있다. 젖이나 飲食物에 의한 乳食傷이 그 다음 원인이며, 外感風寒으로 疾病에 걸리는 것은 드물다고 보고있다²⁵⁾.

(3) 小兒 疾病의 病機

趙廷俊은 小兒의 病은 脾와 肝에 속한 병이 많다고 보고있다.

小兒는 脾胃가 연약하므로 젖과 음식에 精氣가 상하면, 生濕 生痰 生熱하고 濕熱이 結體되어 疾病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小兒는 眞水가 왕성하지 못해서 火氣를 조절하지 못하고, 心火가 炎上하여 肺金을 제제하게 되고, 肺金이 약해져서 오히려 肝이 有餘하게되는 것이 小兒生理의 기본으로 보았다.

즉, 小兒는 肝은 有餘하며 脾腎은 不足하다고 말하고 있다.²⁶⁾

(4) 豫防을 강조

趙廷俊은 小兒에서는 治療보다 豫防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글의 처음에 洗浴法 乳哺法 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소아가 병에 걸리는 첫번째 이유를 胎毒으로 보고 있으므로, 妊娠한 시기부터 섭생에 신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24) 上掲書 : 「小兒論」, p43-44

25) 上掲書 : 「小兒論」, p 44

26) 上掲書 : 「小兒病機」, p 61

그래서 「小兒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머니가 배를 주리면 태아도 역시 배가 고프고, 어머니가 배가 부르면 태아도 역시 배가 부르다. 孕婦가 매운 것을 먹으면 태아가 熱氣를 받아서 情慾이 동하여 胎息이 점차 조동한다. 흑 볶은 것이나 구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맵고 신것을 좋아하거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쁨과 노여움이 恒常되지 못하면, 태아는 영향을 받아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²⁷⁾.

이처럼 小兒의 건강을 위해서는 孕婦가 生活習慣 飲食 情緒를 바르게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태어난 이후에도 보호를 잘해주어 外感風寒邪에 감수되거나 乳食傷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백일도 못되어 짠 것과 신 것을 주거나 한돌도 못되어서 기름지고 단 것을 함부로 먹이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조미를 함부로 쓰지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⁸⁾. 養子十法에서는 背 肚 足を 따뜻하게 해주고, 頭 心胸을 서늘하게 해주며, 脾胃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며, 괴상한 것을 보이지 말며, 울음을 멈추기 전에는 젖을 먹이지 말며, 輕粉과 朱砂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며,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키지말라고 말하고 있다²⁹⁾. 이처럼 小兒의 疾病을 막기 위해서는 胎前 胎中에 起居 飲食 情緒를 조절해야하며, 출생후에도 外感邪를 막아주고 飲食을 조절해서 보호해주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10. 診斷法

『及幼方』에서는 診斷法으로는 觀形察色法 聽聲音法 額脈法 虎口三關脈법 寸口脈法을 다루고 있다. 小兒科에서는 四診중에서 특히 望診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虎口三關脈法과 觀形察色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 觀形察色法

아이의 氣色을 보기위해서 우선 부위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左頰은 靑龍으로 肝에, 右頰은 白虎로 肺에, 額(天庭)은 離陽으로 心火에, 頤(地閣)는 坎陰으로 腎水에, 鼻는 脾에 배속하였다.

또한 五色에 따라서는 병의 原因을 살피고 있다. 紅氣는 熱痰의 응체가 심한 것이며, 靑色은 驚風 怔悸의 징후이며, 黑色은 痛과 中惡을 말하며, 黃色은 食傷脾虛吐利이며, 白色은 疳勞이며, 紫色은 熱이 盛함이라고 보고있다.

27) 上掲書 : 「小兒論」, p 44-45

28) 上掲書 : 「小兒論」, p 44

29) 上掲書 : 「養子十法」, p 50

그리고, 色擇과 部位를 결합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年壽가 적색을 띠면 膿血이 생성된 것이며, 山根이 검푸르면 죽는다. 붉은 줄이 양눈 동자를 가로지르면 心火가 腎水로 들어간 것이고, 푸른 빛이 흰자위에 있으면 肝氣가 肺를 누른 것이다.

또한 色澤과 形狀을 관찰하여 病因을 살피고 있다. 얼굴이 붉고 눈을 치뜨는 것은 驚風이며, 얼굴이 벌겋고 화끈한 것은 風寒이다. 누렇고 푸석푸석한 것은 積滯이며, 누랬다 희었다 하는 것은 疳積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붉었다 퍼랬다하는 것은 風으로 경련하는 것이다. 기운이 不足하면 神門이 함몰되고, 피가 적으면 머리터럭이 거칠다. 肝氣가 動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⁰⁾.

趙廷俊은 觀形察色の 望診에 있어서 神氣를 가장 중요시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五體중에서 頭가 가장 존귀하며 面에는 반드시 神이 있어야한다. 양눈에 睛光이 없고 黑睛이 움직이지않고 目睫이 예리하지 못하고 양눈을 뜨지못하고 黑睛이 몽롱하면 죽는다. 이와 달리 비록 外形은 昏困해보이나 神이 안에 저장되어있어서 탈하지않았으면 산다고 말하고 있다³¹⁾.

(2) 聽聲音法

聲音에 따라서 병의 原因과 輕重을 살피고 있다.

즉, 소리가 가벼운 것은 氣病이거나 虛弱한 것이며, 소리가 重濁한 것은 痛이거나 風이다. 고함치는 것은 熱이 심한 것이고, 소리가 급박한 것은 神驚이다. 소리가 막히는 것은 痰이며, 소리가 떨리는 것은 傷寒이다. 체체를 하는 것은 傷風이며, 소리가 重濁하면서 가라앉는 것은 疳積이라 하면서 病因을 살피고 있다.

또한, 놀라서 우는데 소리가 낮아서 울러나오지않는 것은 重病이며, 소리가 높아서 울러퍼지면 輕病이라 쉽게 治療가 된다고 하여 소리의 음향으로 輕重을 나누고 있다³²⁾.

(3) 額脈法

태어나서 생후6개월까지는 額脈法을 사용하는데, 눈썹위 髮際아래에 무명지 가운데손가락 집게손가락을 대고 診察한다. 집게손가락을 위에, 가운데손가락을 가운데, 無名指를 아래에 놓는다.

세손가락이 다 뜨거우면 外感風寒이며, 다 서늘하면 吐瀉臟寒이다. 집게손가락만이 뜨

30) 上掲書：「觀形察色法」, p 51-53

31) 上掲書：「觀形察色法」, p 53

32) 上掲書：「聽聲音法」, p 54

거우면 胸中滿悶이며, 무명지만 뜨거우면 乳食이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이 뜨거우면 上熱下冷 한 것이며, 무명지와 가운데 손가락이 뜨거우면 挾驚의 症候라고 보고있다³³⁾.

(4) 虎口三關脈

3세미만의 小兒 疾病은 虎口三關脈으로 診斷하고 있다.

男子아이는 왼손, 女子아이는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의 안쪽을 본다. 첫마디가 風關 둘째마디가 氣關 셋째마디가 命關이다. 마디의 紋色으로 病因을 판단한다. 紫色이면 熱이며, 紅色이면 寒이며, 青色은 驚風이며, 白色은 疳病이다. 黑色은 中惡이고 黃色은 脾臟이 약한 것이다. 만일 핏줄이 風關에서 보이면 병이 輕하나 氣關에서 보이면 危重하고 命關에서 보이면 治療하기 어렵다³⁴⁾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虎口三關脈法을 통해서 病因과 輕重을 살피는 법을 기술하였다.

(5) 小兒脈法

小兒脈法에서는 脈法과 脈을 통한 診斷을 제시하고 있다.

男子 5세 女子 6세까지는 大指로 三部脈을 보는데, 1息에 6-7번 뛰면 정상이고 8-9번 뛰면 熱이다. 10번이면 熱이 극심한 것이고 4-5번이면 寒이며 3번이면 虛脫이며 11-12번이면 죽는다.

왼쪽 寸口는 人迎이라 하고 오른쪽 寸口는 氣口라고 하는데, 脈을 볼때 男子는 먼저 왼쪽을 보고 女子는 오른쪽을 먼저 본다.

15세부터는 어른과 같은 방법으로 맥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症狀에 따른 脈의 양상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脈이 沈緩한 것은 食傷이고 促急한 것은 虛驚이다. 脈이 浮하면 風이고, 沈細하면 冷이고, 洪緊하면 傷寒이며, 數하면 熱이고, 遲하면 寒이다. 人迎이 緊盛하면 傷寒이고 寸口가 浮數하면 傷風이다.

또한 症狀과 脈을 연결하여 病의 輕重을 논하고 있다.

驚搐證이면 脈이 浮大하고 몸이 따뜻하면 좋으나 脈이 沈細하고 四肢가 차면 좋지않다. 甘露症에는 脈이 緊數하고 五臟이 實하면 좋으나, 脈이 沈細하고 泄瀉하면 좋지않다³⁵⁾고 하였다

33) 上掲書 : 「額脈」, p 55

34) 上掲書 : 「虎口三關脈法」, p 55-56

35) 上掲書 : 「小兒脈法」, p 56

11. 治療法

(1) 五臟의 寒熱虛實을 강조

『及乳方』에서는 병을 주로 五臟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각 五臟病을 寒熱虛實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肝은 木에 속하고 色은 靑이고 風을 주관한다. 實하면 目直하게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목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므로 瀉靑丸이 마땅하다. 虛하면 이를 갈고 하품을 하는데 腎氣丸이 마땅하다. 熱하면 양눈초리가 모두 긴장하면서 눈동자를 돌리지 못하고 손으로 옷을 더듬고 물건을 잡으며, 심하면 몸이 강직되면서 뒤로 젖혀진다. 風이면 눈을 계속 깜빡거리게 된다³⁶⁾고 기술하면서 肝의 虛實寒熱의 症狀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나머지 四臟 心脾肺腎에 대해서도 寒熱虛實로 症狀과 治法을 논하고 있다.

(2) 脾胃 中心의 사상

趙廷俊은 「東方六氣論」을 주장하면서 그 지역의 風土에 맞는 治法을 구사해야함을 강조하면서 脾胃를 中心으로 한 사상을 보여준다.

「東方六氣論」에서 胃는 倉廩之官으로 胃氣가 한번 虛弱해지면 臟腑를 영양하지 못하여 모든 臟들이 병들게되고 營衛가 錯亂하고 虛實이 거듭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³⁷⁾. 趙廷俊이 脾胃를 中心으로 여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東方에 위치하여 木氣가 왕성하므로 왕성한 木氣에 土氣가 손상을 받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治法도 木은 土의 賊邪이므로, 肝木이 성하면 脾土를 반드시 침해하므로, 脾胃를 補하고 土氣를 충실하게 하여 木이 침범해 들어와도 脾土가 그 해를 받지않게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脾胃에 영향을 주는 肝氣를 다스려야 하며, 肝氣가 實하면 心經을 瀉하고 肝氣가 虛弱하면 腎經을 보할 것을 治法으로 주장하고 있다.

(3) 子母補瀉法을 강조

趙廷俊은 治法에 있어서 子母補瀉法을 강조하고 있다. 子母補瀉法은 虛하면 그 母를 補하고, 實하면 그 子를 瀉하는 것인데, 肝木이 實하면 心火를 瀉하고 肝木이 虛하면 腎水를 補하도록 하고 있다.³⁸⁾

36) 上揭書：「五臟主病」, p 57

37) 上揭書：「東方六氣論」, p 42

(4) 五臟相乘法을 강조

병을 일으키는 것에는 五邪, 虛邪 實邪 正邪 賊邪 微邪가 있다고 보고, 五臟相乘法을 강조하고있다. 가령 肝이 病들면 반드시 肺를 다스리고 腎를 補한 후에 肝의 虛實을 보아서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³⁹⁾.

五臟病機는 五行生克制化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데, 庸醫들이 臟腑虛實勝乘의 病이 있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外感內傷으로 用藥하여 病者를 죽게 함을 개탄하고 있다.

12. 病因病機에 對한 관심

趙廷俊의 『及乳方』은 『東醫寶鑑』 『小兒藥證直訣』 『醫學入門』보다 病因 病機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항문에 구멍이 없는 것은 肺熱이 항문을 閉塞한 것이라고 하였고⁴⁰⁾, 脚軟은 骨髓가 가득차지 못하고 氣血이 충만하지 못해서 筋脈이 骨을 묶지 못해서 생긴다고 하였고⁴¹⁾, 小兒浮腫은 久瀉 久痢 久瘡疔積 등에서 발생하는데 脾土가 虛弱하여 腎水가 반대로 勝해서 오는 것⁴²⁾이라고 하면서 모든 症狀에 對한 病因 病機를 기술하고 있다.

13. 實證的인 臨床經驗에 對한 기술

趙廷俊은 모든 卷의 末尾에 자신의 실제 임상경험을 기술하여 小兒를 진료할 때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庸醫들의 그릇된 治療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올바른 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선비의 아이가 어려서부터 疳疾기운이 있었다. 16세가 되어 갑자기 晝證을 얻어 크게 吐瀉한 이후에 胃氣가 虛弱해지고 津液이 모순되어 침체된 것이 이미 1년이 되었다.

모든 의사들이 陰虛火動으로 보아 滋陰降火하는 약을 썼으나 모든 症狀이 심해지고 困倦無力하면서 飲食을 전혀 먹지 못했다. 나는 말하기를, 陰虛증상이 疳勞와 비슷하나 疳脈은 數 虛 軟 無力하며 腹脇이 부풀면서 딱딱하고 大便이 고르지못한다. 이것

38) 上揭書：「母子補瀉法」, p 59-60

39) 上揭書：「五臟相乘」, p 60

40) 上揭書：「初生雜證」, p 71

41) 上揭書：「五軟五更」, p 217

42) 上揭書：「浮腫」, p 509

은 脾胃가 상하여 疝氣가 속에 팽만한 것이지, 陰虛한 症狀은 아니다. 滋陰之劑는 胃가 꺼리는 바이다. 異功散 肥兒丸에 加減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庸醫들이 믿지않고 陰虛로 治療하여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⁴³⁾.

III 결론

1. 『及乳方』이 나오게 된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사회문화 풍조와 학문적 경향이 실증적이였다.
실증적 자주적 경향속에서 宋代 錢乙의 『小兒藥證直訣』과는 다른, 우리 풍토에 맞는 小兒科 전문서적이 필요했다.
둘째, 조선시대 만연되었던 疫病이 특히 조선중기에 크게 유행하여 많은 노약자들이 죽어나가면서 역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째, 趙廷俊의 자주성이다. 『內經』의 異法方宜論을 근거로 하여 「東方六氣論」을 주장하면서 風土에 따른 治法과 治方을 강조하였다.
2. 『及乳方』의 주요 내용은 『醫學入門』 『小兒藥證直訣』 『東醫寶鑑』을 따르고 있다.
凡例에서는 『及乳方』은 醫學入門과 錢乙方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病證의 설명과 내용은 대부분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을 따르고 있다.
趙廷俊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고 있다.
3. 『及乳方』은 治療보다는 豫防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내용의 순서도 小兒論 保護法 調護歌을 먼저 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일반 病證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각 病證의 끝에는 예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4. 『及乳方』은 診斷에 있어서는 望診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소아는 問診과 脈診이 어려우므로 觀形察色과 聲音을 살피는 것을 中心으로 삼고 있다
5. 『及乳方』은 治法에 있어서는 五臟相乘 母子補瀉法을 원칙으로 하였고 五臟中心과 脾胃中心으로 논한다.
6. 『及乳方』의 일반 病證의 구성은 病證에 대한 정의, 症狀, 病因 病機, 處方名, 處方構成, 臨床實例 或은 豫防法으로 되어있다.

43) 上揭書：「疝疾」, p 378

7. 『及乳方』을 통하여 趙廷俊시대에는 天然痘보다는 紅疫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趙廷俊은 天然痘에 대해서 본적이 없어서 『醫學入門』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반면에, 紅疫에 대해서는 初中末의 症狀과 治方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예후까지 기술하였다.
- 8 『及乳方』은 『醫學入門』 『藥證直訣』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았으나,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病因病機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9. 『及乳方』은 小兒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기준으로 삼아, 실제 임상을 할수있게 해주는 實證的인 의서이다.

IV. 참고문헌

1. 李經緯著 : 『中國醫學通史』, 인문위생출판사, 2000,
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 『黃帝內經素問校釋』, 일중사,
3. 홍원식편찬 :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4. 吳峻煥 金基郁 朴炫局: 「錢乙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01.VOL.14,
5. 丁圭萬編: 『東醫小兒科學』, 행림출판, 서울, 1992,
6. 金斗鍾 :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7. 김홍균·박찬국 : 「朝鮮中期醫學의 系統에 관한 연구」, 한국 의학사 논문집, 1995.8,
8. 경희대학교 출판국 : 동양의학대사전.
9. 한국한의학회연구소: 95년도 연구결과보고서 한국 의학사 재정립, 서울.
10. 원광대한의과대학: 한국의약인명사전, 서울, 도서출판의성당. 1991.
11. 李勳: 「중국소아과학의 사적고찰」, 경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12. 趙廷俊 : 『及幼方』, 여강출판사, 1998
13. 김수록 : 『東醫小兒科學』, 여강출판사, 서울, 1993
14. 李梴 : 『醫學入門』, 高麗醫學,
15. 李梴편찬 : 채인식 안병국공역, 국역편주의학입문, 남산당
16. 錢乙 : 『小兒藥證直訣』, 醫聖堂, 서울, 2002
17. 許浚 :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